

# 2020년 기점, 전북이 주역 되도록 만반 준비 갖추는 것

어 느덧 민선 6기 전북도정 3주년을 맞았다. 송하진 도지사는 그동안 내발적 발전 전략을 통해 핵심시책과 프로젝트를 발굴, 차근차근 성과를 쌓아왔다. 낙후됐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도민의 자긍심을 되찾기 위한 도정 운영으로 '생동하는 전북도'의 기반을 다졌다. 이에 본보는, 송하진 도지사를 만나 3년동안의 도정 성과, 향후 운영 방향을 들어본다.

## ▲민선6기, 어느 덧 3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본다면?

지난 3년,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뛰고 또 뛰면서 힘 없이 도정을 운영해 왔다.

전주시장 재임시절부터 가졌던 큰 꿈인, 살기 좋고 아름다운 우리 전라북도를 사람이 모이고 14개 시군 전체가 골고루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3년간 온 열정을 쏟았다.

우리가 잘하고 또 잘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추진하는 '내발적 발전 전략'을 통해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그리고 새만금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삼락농정으로 전북 농업의 새로운 성장판을 확보했고, 전북투어패스로 전북관광을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탄소산업의 국가주도 추진체계를 마련했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여건이 조성되는 등 전북의 분위기를 확 바꿀 꾀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200만 도민이 손잡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전북발전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다.

## ▲연초 '전북 뭉 찾기'를 선언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선정국, 문재인 대통령 당선,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지는 지난 6개월 동안 '전북 뭉 찾기' 성과는?

지난해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대한민국은 엄청난 혼란과 불안으로 흔들리고, 국민들은 분열되는 암흑과도 같았던 시기를 겪었다.

하지만, 저는 그 때를 동트기 직전의 어두움이라고 느꼈고, 그 때야말로 전북 뭉을 주장하고 우리 뭉을 되찾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전북 뭉 찾기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대선 주요 후보들이 우리 전북의 상심감과 아픔에 공감했으며, 특히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의 친구로, 전북을 별도 권역으로 판단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대통령 공약에 전북도가 제안한 10개 과제 30개 사업이 반영됐고, 새 정부 출범 후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장관 5명, 청와대 비서실에 국민소통수석 등 6명 등 전북출신 인사가 다수 임명되었다.

특히 바다의 날 수석비서관 회의, 청와대 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은 전북현안과 관련된 지시와 약속을 재확인 해주는 등 전북을 배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25일 수석보좌관 회의시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유치 지원 지시와 5월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추진 약속, 6월14일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군산조선소 문제해결 약속 등이다.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으며, 달라진 환경과 여

건을 기회삼아 앞으로 우리 전북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됐다.

## ▲민선6기 3년, 어떤 성과들이 있을까요?

먼저,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육성 하는 사업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돼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했다.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생마을 700여개를 조성했으며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 제 값 받는 농업을 실현해 가고 있다.

전국 최초 도입한 전북투어패스를 성공적으로 도내전역에 확산시켰으며,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등 3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전북을 세계에 알렸음. 최근에는 전북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산과 역할을 하게 될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를 유치했다.

“농생명 클러스터 대통령 공약 반영 전북투어패스, 도내 전역에 확산 청와대 새만금사업 전담부서 설치 왕궁 악취 저감... 생태환경지로 전북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 이전

탄소산업육성법 제정, 메가탄소밸리 구축 등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인 탄소산업의 시작부터 상용화까지 전북이 중심에 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여건을 조성했음. 청와대 새만금사업 전담부서 설치, 공공주도 매립, 국책사업에 걸맞은 SOC구축 등을 대통령께서 약속하는 등 새만금의 국책사업 위상을 확보했다.

고질적인 악취지역인 왕궁의 악취가 14년의 1/4수준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저감되어 생태환경지역으로 탈바꿈했음. 도민행복도 광역1위, 주민활력지수 전국 3위, 지역문화지수 우수 지역 등 도민의 삶의 질 지수가 전국 상위권 평가를 받았다.

466개 기업과 2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2년연속 지방투자촉진사업 분야 전국 1위를 달성했고, 1,300억원에 달했던 외부차입금을 민선6기 출범 3년만에 상환을 완료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

전북혁신도시는 11개 공공기관이 이전 완료했고, 전북금융타운을 연금·농생명 특화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고 관련 금융산업 육성, 연금기 전문대학원 설립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됐다.

## ▲민선6기 남은 1년 해야 할 일들이 많을텐데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삼락농정 등 핵심시책 꽃피우기 새만금 개발 속도감 있게 추진 전북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 조성 국정 과제 일자리 만들기 앞장 2023 세계잼버리 유치 전력

십니까?  
대통령이 전북 독자권역 인정과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 등을 약속하는 등 지역발전의 대전환기를 맞은 기회를 잘 활용하여, 그동안 추진이 지연됐던 국가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역 간 발전격차가 해소될 때까지 전북 뭉 찾기와 병행해 2020 전북 대도약을 위해 많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기회가 열려있는 "2020년 전북 대도약"이라는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3년

쏟았다.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강조해 오셨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새만금 사업은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업으로서 국책사업의 위상을 확보하고 속도감 있는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청와대 전담부서 설치, 공공주도 매립 추진, 국책사업에 걸맞은 SOC 조기구축 등이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되었다.

국가계획에 반영된 새만금 공항은 항공수요 조사가 진행 중이며, 동서도로 공정을 35%, 남북도로는 기본설계 완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실시설계 완료, 새만금 신항만은 1단계 방파제 완공 등 새만금 핵심 인프라가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의 국책사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한만큼, 새만금 국제공항과 도로·철도 등 내부 인프라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완벽히 추진하겠다.

▲2023 세계잼버리 유치지역을 선정하는 아제르바이잔 총회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새만금 유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2년 전 러시아 캐리빈스크에서 열린 2017 세계태권도대회 개최지 결정 총회에서도 유럽 태권도의 중심지인 터키 삼순시를 상대로 쉽지 않았지만 무주 유치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이번 경쟁지인 폴란드 또한 쉽지 않은 상대임. 폴란드 역사상 최초의 세계잼버리 유치임을 강조하며 적극 나서고 있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천혜의 아역지인 새만금의 개최 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꼭 유치에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

##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전북혁신도시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해 오는 데 따라 전북혁신도시를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허브 조성도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전북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중심지로 육성,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자본시장 형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겠다.

지난 4월 11일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첫 협력사업으로 국민연금공판과 전북도, 전주시, 전북대학교가 전문인력양성 협약을 맺고 금융·연금경제학 석사를 양성하고 있다.

## ▲민선6기 3주년, 도민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왔음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함께 나산다면, 기회는 반드시 성공의 열매로 바뀔 것이라 확신한다.

다가오는 미래에 변화를 이끄는 힘은 바로 우리 도와 도민의 뭉이기에, 더욱 강하고 힘 있게 전북발전을 추진하겠다.

상대적 낙후와 소외의 역사를 딛고, 2020년을 기점으로 도약을 이루고 미래에는 전북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민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겠다.

/김진성 기자



## 평창, 문화를 더하다.



### 평창문화올림픽이란?

- IOC, Cultural Olympiad Guide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올림픽 행사의 일부로 전개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개최국 및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축제, 교육 활동을 통칭합니다.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문화올림픽 관련 정보와 생생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블로그

[blog.naver.com/2018cultureolympiad](http://blog.naver.com/2018cultureolympiad)

 페이스북

[facebook.com/2018cultureolympiad](http://facebook.com/2018cultureolympiad)